

투데이

미국서 두번째 日 위안부 기림비 제막

아이젠하워파크에...광주시·한인단체 “잔혹한 범죄 기억해야”

미국 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사진)가 광주시와 한인단체 공동으로 건립됐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11시 미국 뉴욕주 닷스카운티 아이젠하워파크 현충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제막한 기림비는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닷스카운티 정부와 광주시 그리고 한인단체인 한·미공공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 기림비는 특히, 최근 일본 중의원의원들이 미국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캘리포니아주 시를 방문해 시립도서관에 세워진

기림비 철거를 요구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제막식에는 강운태 시장과 에드 뱁가노 닷스카운티장, 이철우 한·미공공정책위원회장, 언론인, 관련단체 회원 및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군대에 유린당한 여성과 소녀 20여만명의 한과 고통을 상징하기 위해 붉은색 화강암으로 제작된 기림비에는

“이들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인류에 대한 이 잔혹한 범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글귀가 새겨

져 있다.

또 기림비 뒷부분에는 이들 피해자가 확대받고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가수 김장훈씨와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제작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

광주시와 한·미공공정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인권증진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 지구촌 전역에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제막식에서 “광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닛스



카운티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위안부 기림비를 건립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계기로 광주도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시장은 이번 닷스카운티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 건립 및 주변 단장 사업에 사용해주도록 한 달 분 급여를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홍행기자 redplane@

VFX 선두업체 광주 동지...세계시장 도전

(영화 시각효과)

광주 문화콘텐츠산업 선도업체 ⑤ 디지털아이디어3D

‘태극기 휘날리며’ ‘할’ ‘괴물’ ‘국가대표’ 등 국내 최고 흥행 영화를 만들어낸 영화 시각효과(VFX·Visual Effect) 전문 제작사 3D 산업 육성과 세계 시장진출을 위해 광주에 새로운 동지를 틀고 도약을 준비중이다.

국내 최대의 VFX 제작 전문업체인 디지털아이디어(대표 이승훈)는 지난해 3월 100% 지분을 투자한 ‘디지털아이디어3D’라는 회사를 광주에 설립했다.

1998년 창업한 디지털아이디어는 최근 영화 ‘용문비감’(3D 입체·감독 서극)으로 제6회 아시아안 필름 어워드(AFA)에서 최우수 시각효과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200여편의 영화제작에 참여해 국내외 유명 영화제의 기술상을 휩쓸어 국내 영화시각효과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개봉한 3D입체 애니메이션 ‘코알라 키드’를 제작한 3D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 디지털아트와 국내 최고의 영화 영상 사운드 믹싱 전문업체인 라이브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영화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VFX 제작 전문업체가 광주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 때문이었다.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중 광주시가 광주CGI(컴퓨터 형성이



국내 최고 흥행 영화를 만들어낸 시각효과(VFX) 전문 제작사 ‘디지털아이디어3D’ 광주본부 직원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광주CGI센터 기반삼아 3D 콘텐츠 지지 마련

미지 기술·Computer Generated Image)센터를 설립하는 등 3D산업 육성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에 세계적인 3D입체 콘텐츠 전략적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또한, 전국에선 유일하게 광주에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돼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련 국책연구기관이 광주로 이전된다는 점도 반영됐다.

디지털아이디어 양일석 광주본부장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수시로 대표에게 전화해 광주사무소 개소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는 등 문화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한 점도 광주에 동지를 트

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본부에는 현재 30명의 직원이 근무중인데, 이중 21명이 광주·전남 출신이다. 지난 1년간 국내 영화 10편과 중국영화 2편 등의 제작에 참여했고, 영화 ‘투혼’ ‘가비’ 등의 작품은 광주 인력이 중심이 되어 제작에 참여했다.

양 본부장은 “광주에는 문화콘텐츠 관련, 우수 인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최근 문을 연 광주 CGI 센터에는 서울에서도 흔치 않을 수 없는 고가의 장비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직원들의 능력 배양과 프로젝트 수주 및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전선 순천~광양 복선전철 오늘 개통

국도해양부는 20일 “순천~광양(8.0km) 구간의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공해 2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4031억원이 투입됐고, 지난 2004년 7월 착공한 이후 7년11개월 만에 개통하게 됐다.

순천~광양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선로용량이 1일 21회에서 88회로 크게 늘어나고 운행시간도 9분에서 7분으로 줄어든다.

전기기관차 운행으로 수송원가(동력비)도 디젤기관차 대비 68% 수준으로 절감된다.

이 구간은 경전선 순천~삼랑진(156.3km)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일부다. 삼랑진~마산(40.6km)이 2010년 12월 개통했고, 마산~진주(53.3km)는 올해 말, 진주~광양(51.5km)은 2015년말까지 개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전선 구간이 모두 복선전철로 완공되면 전라도와 경상도간 교통·물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인적·물적 교류 및 남해안 벨트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국제 금형 및 기계 산업전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광주 국제 금형 및 기계 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1959년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회전기공의 수동식 선반을 살펴보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성서 21~2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 대표회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함시의원 의원)가 21~22일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제165차 시·도대표회의를 연다.

이번 대표회의에는 포항,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광주 남구, 전남

장성, 경남 하동, 강원 속초시, 대구 달서구의회 등 15개 자치구의회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과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사업 국고원천 등을 논의하

게 된다. 또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 회의에 참석해 여수세계박합회와 을 가을 열리는 F1 코리아그랑프리 등 전남지역 국제행사를 알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공항 주변 6곳 소음 5년전보다 높아져

박혜자 의원 국방부 자료 분석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광주공항 주변 소음 줄이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공항 주변 소음측정지수(WECPNL·웨클)가 5년 전보다 4배 높아진 것이다.

20일 국방부가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에게 제출한 ‘광주공항 주변 소음자통측정망 운영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보다 지난해 소음측정지수가 더 상승한 지역은 8곳 중 6곳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곳은 5년 전과 변화가 없었다. 군 당국은 2007년부터 매년 우산

동·덕흥동·치평동·송대동·본덕동·신촌동·송정동 등 광주공항 주변지역 8곳을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해왔다. 지역별로 보면, 신촌동(82웨클→85웨클)·송대동(90웨클→92웨클)·송정동(81웨클→83웨클)·덕흥동(78웨클→79웨클) 등이다. 지난 5년간 전투기 방음장치 설치 등 군 당국의 소음 저감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국방부는 전투기 이륙 또는 이동 때 나는 소음을 최고 값이 아닌 평균 값으로 계산해 발표했다”며 “평균이 아닌 최고 소음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시의회, 공기업시장 검증 조례 행안부 재의요구에도 재의결

광주시의회는 20일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 ‘지방 공기업 시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를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정원 26명 중 24명이 출석해 21명 찬성,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재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이 조례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공포 직전에 행안부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제동, 보류된 상태였다.

이날 시의회가 재의결을 강행함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7월 말까지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최권일기자 cki@

2012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석사과정(야간) : 20명 내외

- 모집전공 :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 광주반, 여수반
- 원서 접수 기간 : 2012. 6. 15(금) ~ 2012. 7. 3(화) 18 : 00
- 전형 방법 : 구술 면접고사
- 전형 일시 : 2012. 7. 7(토) 14 : 00

2.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화 : (062)530-5196, FAX : (062)530-2266
- 홈페이지 : http://cnugpa.kr

카드대금 “즉시결재”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할인의료점, 유흥업소, 각종체인점, 식당, 중고차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맹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83-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이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 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8호